

"China Anxiety": Discourse and Intellectual Challenge by Yongjin Zhang (2013)

김원준

서구에서 만연한 "중국 불안(China anxiety)"에 대한 연구

영미 학계와 언론, 정계에 만연한 중국 불안에 대해 리뷰하고 그 근원을 밝히는 논문

중국의 부상은 중국의 intention, projection, and purpose에 대한 찬반 논의의 발전했는데 최근 불안은 중국이 부상(prospect)이 아닌 그 '목적'(purpose)이 무엇인가 하는 점임. ✓

중국의 부상에는 다양한 paradox, contradiction, irony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intellectual disorientation과 agony가 있음. 즉, 학계가 잘 볼 수 없는 상황임

이를 두 가지로 살펴봄 - 즉, (1) 권위주의 강대국의 복귀와 (2)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미래에 관한 불안

저자의 주장은 결국, 중국의 부상 자체 요인보다는 영미에서 중국의 부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한 그 담화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중국의 부상은 서구에서 받아들여졌던 지적 전통에의 도전이라고 기존 논의의 프레임을 바꾸려고 시도

#### A Discourse of Anxiety

다양한 중국에 대한/중국의 부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광범위하게 리뷰 (군사, 전략, 경제, 소프트파워, 원조, 자원, 환경 등등)

결론은 결국, 힘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과 의도의 문제이고, 결국 중국이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가 하는 Zoellick의 논의로 귀결

Legro도 또한 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의 주요 리더십과 정책결정자의 전략적 외교정책 목표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

즉, 중국의 부상은 실제(real)이고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정책으로 대응할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

#### Surprise, Paradoxes and Contradictions

중국의 부상은 처음에는 surprise와 puzzle로 다가옴 (사회주의의 국가에서의 급속한 경제 발전 혹은 사회주의의 중국이 자본주의의 미국의 국체의 최대 보유자라는 사실 등등)

또한, 아이러니는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를 유지하는 unapologetic communist regime임 (왜냐하면, 이론에 따르면, 경제발전이 지속되면 정치적 개혁과 민주화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존재)

더 나아가, 중국의 부상이 지역 안보 체제에 destabilizing이 아닌 stabilizing factor로 작용한다는 점이 더 놀라운 점임 (예를 들어, 중국은 많은 분야에 있어서 다자주의와

안보협력 등 중요 안보 규범을 수용함. 물론, 미국에 대해 다양한 도전 -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반대, 근해에서의 미국의 군사 훈련 중지, 군비 및 항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제의 중강 등 - 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지역 안보 질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

### Intellectual Agonies: Two Propositions and Debates

핵심 주장: 중국의 부상은 서구의 매우 중요한 철학적 가정과 정치적 신념 (some dearly held philosophical assumptions and political convictions in the West) 에 도전

즉, 중국의 부상은 서구에 매우 성찰적이고 불편한 두 가지 질문 (deeply reflective and profoundly disturbing questions)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 논쟁이 있음

첫째, 권위주의적 강대국의 부상. 혹은 국제정치에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갈등으로의 복귀

둘째, 유사한 문제인데, 이러한 권위주의의 부상은 결국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짐

### Rising China as Intellectual Challenge

중국의 부상은 서구에 결국 다음 세 가지 지적 도전을 제시

첫째, 현재 의미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부상에 관한 주요 담화는 문제가 있음. 다양한 political commitment와 cultural assumption하에서의 주장임. 결국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겪고 있는 변환 (transformation)의 크기와 어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함.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큰 변환임.

둘째, 비판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영미권의 논의는 다른 '중국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함. 중국은 지금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항상, amalgam of seeming contradiction이었음. 이 점을 수용하면 다른 관점이 나옴 - (1)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안 그리고 성찰적인 지식 추구 (2) 중국의 이해는 어쩔 수 없이 서양 지식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셋째, 중국에 대한 이해는 서구의 근본적인 이론적, 철학적, 정치적, 그리고 인식론적인 가정에 도전.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중국에 대해 묻던 질문 (경제와 일당독재의 공유, 발전의 지속 등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

### 비판적 고찰:

결론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중국의 목적에 대한 영미권의 불안은 중국의 대해 말해주기보다는 영미권 <즉 서구의 지적 한계와 가정에 대해 말해준다는 주장임> ✓

기존의 서구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의 중국 위협론에 관한 다양한 주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리뷰했다는 장점이 있음.

이제까지 보지 못한 시각으로 영미 학자의 중국에 관한 입장에 관한 고찰에서 넘어서 이

이면에 영미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과 철학적 기반에 대해 생각한 것은 기발한 발상의 전환임.

비판점:

1. 영미권의 학자와 연구자의 인식을 주로 살펴봄. 현 주장이 이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자와 대중의 인식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임
2. 저자가 영미권에서 교육을 받고 영미권에 살면서 영미의 사상체계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가정 하에서 쓴 글이지만 서양 사상 및 사고 체계가 과연 이렇까 하는 의심
3. 이 글이 아무리 서구의 중국 불안 위주로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2013년 글이면, 2012년엔 썼을 것인데, 중국의 부상 혹은 중국의 의도 및 목적이라는 점을 너무 benign하게 보는 중국학자로서의 관점이 존재. 이는 두 가지 근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benign하게 본 것이고 둘째는 중국의 역량과 의도에 대한 중국을 떠난 학자로서의 과소평가가 있음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리라는 시각)
4. 특히, 중국의 부상이 지역안보에 안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주장은 이 글을 쓸 당시에도 꼭 맞지 않은 예상이었음. 또한 중국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너무 단순한 주장임. 이러한 주장과 가정의 이유가 안보 문제를 너무 중국공산당의 rhetoric으로만 이해한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듦



Is there an international order

○논의의 초점: 국제질서의 현실과 의미

- 유엔 개혁: 제도의 본질의 변화를 초래할 유엔 안보리 개혁, 인도주의적 개입과 제국적 전통의 장단점
- 의견의 일치: 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설립된 국제제도의 틀이 여전히 국제질서의 근간으로 작동 중

○1945년 중화민국은 새로운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강대국의 지위에 감사하는 위치

- 1949년 내전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본토 장악
- 1971년 10월 유엔 총회 결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
- 유엔기구나 세계은행 팀들이 계획경제로부터 중국의 경제변화를 돕는 역할 수행
- 많은 중국 관료들이 그러한 관점을 갖고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데 익숙해지고 국제체계를 지배하는 수사와 관행을 습득
- 국제체계가 자신들을 위해 작동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는 자신감 획득

○현상유지적 국제질서관에 대한 중국의 입장

- 1949년~1990년대까지 우호적이지 않은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는데 민감
- 중국은 국제질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역사적 틀에 대한 지지, 현재 중국은 국경과 정권 유지를 원하는 현상유지 세력의 성격이 강한 상황
- 반면, 미국은 보다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관여하려는 입장
- 중대한 권력 이동,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주권 침해 방지, 빈국 사회에서의 개발 지원, 인재와 자연재해에서 생명의 구호에 유엔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진전시키는데 우세한 틀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단 순히 현실주의적으로 대처하고 지지하는 입장

○국제질서 내 중국의 위치에 관한 outside-in view, inside-out view의 문제

- 이 두 시각이 수립될 수 있는가, 보다 예측가능한 태도가 중국의 사고와 행동을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할 것인가
-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볼 때 핵심 중국 지도자와 사상가들은 3500년에 걸쳐 형성된 문명을 형상화하는 심층구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
- 중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관점에서는 보다 복잡한 계통이 존재
- 몽골초원과 신장에서의 다양한 부족 연합은 만주, 티벳고원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연합과는 다르게 중국 인식
- 다양한 방향에서의 중국 문명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16세기 이래 공세적인 유럽

의 무역국가와는 다른 형태

- 근대일본과 러시아가 청제국을 분해하려는 노력

○ 중국이 대외관계를 다루는데 2가지 요소로서 첫째, 문민 지도자 모두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오랜 전통

- 전략적 사고는 춘추전국 시대에서 유래

- 국가들의 지도자는 관리, 철학자로부터 승리, 생존, 패배의 비밀에 대한 조언 요청

- 어떻게 장기간의 끊임없는 권력이동에 대처하는가?

- 국가수의 감소라는 한 방향으로의 경향, 전국시대 7개 국가에서 결과적으로 진으로 통일

- 진한 통일후 수세기에 걸친 국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를 통합하는 가치 있는 이념으로 초점 이동

-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왕, 황제와 왕조의 운명보다 더 값진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

- 진의 통치자는 천자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유일한 권리 보유, 일종의 문명에 기반한 제국

- 천자는 단순히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중국의 존재를 있게 하는 가치체계의 상징

○ 둘째, 중국 사고에서 변화의 만연과 불가피성이라는 근본적 이념

- 주역: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가정은 모든 것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

- 어떤 것도 영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삶에 대한 태도와 국제질서의 이념에 대한 심층구조로서 기능

- 중국인들은 어떤 정치질서도 영원하지 않다고 인식, 좋은 제도나 좋은 이념은 지속되는 한에서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교육

- 변화를 기대하지만 진보적 지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 중국은 현재의 상태를 국제질서로 보지 않고 반세기 전 강대국들 사이 투쟁의 산물로 인식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과 규범의 이상과 주권국가의 평등원칙은 국제연맹보다는 뚜렷한 개선이 있지만 현실은 강대국들이 훨씬 더 평등, 이러한 체제는 필연적으로 불완전, 중국은 이것을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

- 1945년에 고안된 체계가 21세기 나머지 기간에도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

- 이러한 측면의 중국의 문화적 유산이 전체적인 세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할 때 실행가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

- 역사적 경험에 전략적 사고, 변화에 대한 현실주의적 기대, 장래 변화가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장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합리적 희망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What the idea of international order means for China

- 신세계질서에 대해 4단계의 계몽과정을 거치는데 첫단계는 19세기 후반에 시작
- 2차려 아편전쟁의 결과가 외부질서에 대한 중국의 이념에 도전
- 영원한 변화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 새로운 종류의 제국질서가 1천년 이상 채용하여온 조공시스템을 전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저
- 중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
- 중국의 고위관료들은 중국의 조약항에서 활동하는 강대국들이 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도전하는 제국이라고 인식
- 민족국가가 장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제도라는 웨스트팔리아 체제는 중국이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국가 제국
- 메이지 제국일본과 달리 청은 새로운 교훈을 배울 자세가 아니었다는 점

- 2단계는 청일전쟁 패배 직후에 시작, 초기의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 지 자각
- 그 무렵 조공관계를 통해 외국으로 표현된 천하관념이 사라짐
- 일본에 의한 패배는 중국의 곤궁한 상황이 일시적이며 중국은 힘과 위신의 상실 없이 새로운 현실에 적용할 시간이 있다는 환상의 비현실성에 대한 자각
- 19세기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권력을 위한 적대와 경쟁으로 엄청난 혼동과 불안정의 시기가 도래
- 새로운 세력들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제국적 이해에 의해 결정된 지구적 현상유지를 수용하기를 거절, 제국을 열망하는 국가들은 이들에 도전
- 그러한 경쟁적인 세계속에서 동등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만주왕조 몰락 후 중국 자체 내에 질서가 없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점
- 1912년 새로운 공화국은 내전상태에 빠지고 일본의 간섭과 침략
-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국제연맹이 출현, 중국은 이것이 국제질서의 비효율적 상징이라는 사실 인지
- 국제연맹이 일본의 만주위성국가 건립, 중국영토의 추가 침탈을 막는데 실패한 후 중국은 국제연맹에 대한 완전히 불신
- 제2차 세계대전을 방지하는데 실패, 중국내 국제질서에 관한 회의론 증가

- 1945년 연합국이 승리한 후 중국의 희망은 잠시 동안 실질적으로 부각
- 많은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중요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내전을 승리하면서 결정적 변화 도래
- 이데올로기적 냉전과 2개 초강대국이 질서: 마오쩌둥이 천하대란이라고 명명
- 천하대란에서 생존하기 위해 평등과 주권의 원칙을 강조하고 대안을 추구: 반동회의, 비동맹, 제3의 세력
- 수용할 수 없는 질서로서 그러한 체계를 거절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이고 그러한

체제의 전복이나 대체를 위해 노력, 1991년 냉전 종식까지 덩샤오핑 하에서도 존속

○1990년대 이후 4번째 단계

- 중국의 지도자들은 오늘날 처음의 세 개의 단계의 경험으로부터 강력하게 도출하고 inside-out views와 outside-in views 둘 모두를 통합하려는 도전에 직면

What about the future?

○조셉 나이 2003년 7월 Foreign Affairs

- 네오콘의 세계관을 요약: 미국의 일방주의

- 중국은 단일 초강대국의 이해에 기여하기 위해 고안된 체제가 오랫동안 안정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는 점

○균형되고 제한적인 다극체제

- 중국은 장래 다극적 세계를 위해 작동 가능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인정

○규칙에 기반한 지구적 시장경제

- 보다 많은 수준에서 상호의존이 증가하는 시장경제

- 규칙에 기반한 지구적 경제에 대한 중국의 투입은 여전히 주변적, 통합되고 안정적인 중국은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건전성에 중요한 기여 필요

○근대적, 합리적, 세속적 문명의 세계

- 세계는 근대적, 합리적, 세속적 문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념

- 이것은 부분적으로 세계사에서 중국의 역사적 지위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 그리고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국민들이 더 낮고 행복한 주민이 될 수 있기 때문

- 중국은 근대적인 진보적 가치를 자신의 심층구조로 투입

1. 핵심에 유교를 품은 신유교 유산의 핵심 특징으로의 복귀

2. 중국의 세속주의는 서구가 경험한 정교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세속적인 것(this-worldly)으로 기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 중국은 근대문명을 강화하는 가족에 기반한 이념뿐만 아니라 분명한 공동체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

3. 근대성은 모든 중국 사고의 근저에 있는 변화의 원칙에 합치

○150년의 상호작용으로 중국은 장래 국제질서에 공헌하기 위해 충분히 내외부 시각을 통합해오고 있다는 점